

순창군청사, 에너지효율 극대화

지난해 에너지 절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억원투자 복층유리 설치

순창군청사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에너지 절감 청사'로 새롭게 변신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3억원을 투자해 군청사 로이복층유리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로이복층 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 규모는 군청사 5,014㎡의 모든 외벽 창문을 시공했다.

로이복층 유리는 태양의 가시광선은 대부분 안으로 투과시켜 실내를 밝게 유지하고 적외선 영역의 복사선은 효과적으로 차단해 단열능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또 고기밀성 단열 창호는 겨울에는 안에서 발생한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여름에는 바깥의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사용 없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너지 절감 청사를 실현한 것. 군은 군청사가 단판유리 및 창호가 많아 열손실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사업 시행 전 군청사 연 에너지 사용량은 1,064MWh(메가와트)이고 사업 완료 후에는 692MWh(메가와트)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절감률이 35%에 이른다. 년 5천 6백만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5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군측은 파악하고 있다. 온실가스도 연 17tCO2/(톤이산화탄소)저감효과도 있다.

한편 순창군청사는 2013년,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절감 실적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에 오르는 등 에너지절감 청사로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귀농취촌인 한마당 '호응'

120여명 참석... 지역민과 소통·이해 노력다짐

순창군이 귀농취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귀농취촌인 한마당 잔치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5일 북촌면 상송기에서 황숙주군수,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 북촌면 주민자치위원장 북촌면 관내 기관장과 귀농취촌인과 지역민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영농작업이 끝난 밤 시간에 열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황숙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귀농취촌인과 지역민간의 화합, 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 행사가 되길 바란다" 며 "순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 했다.

북촌면 귀농인 협회 이근배 지회장은 "귀농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한마당 잔치를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지역민과 함께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쟁치면, 인계면, 북촌면 귀농인 화합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금과면, 구림면은 농번기가 끝난 하반기에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바란다" 며 "순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 했다.

북촌면 귀농인 협회 이근배 지회장은 "귀농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한마당 잔치를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지역민과 함께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쟁치면, 인계면, 북촌면 귀농인 화합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금과면, 구림면은 농번기가 끝난 하반기에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장성숲체원·고창석정웰파크병원 협력·협약 체결

국립장성숲체원(장성관백 치유의숲)과 석정웰파크병원은 공동발전과 상호협력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자진료와 기관발전을 위해 상호교류의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 공동발전 업무협약 취지설명 ▲ 양기관 대표자 서명식 ▲ 양기관 임직원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백수 국립장성숲체원장과 전세일 석정웰파크병원장을 비롯해 양기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치유의 숲 장소 제공, 환우(가족분)지원, 지역사회발전 공공사업 및 봉사활동 등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교류를 활성화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조백수 원장은 "석정웰파크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환우들이 산림복지 서비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학정마을·농업과학원 1사1촌 자매결연

임실군 학정마을(대표 신승철)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이진모)은 26일 '농촌생태마을가꾸기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학정리 소재 남촌마을 예정관에서 유전자공학과 소속 연구원 및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 교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애용을 위한 결연증서를 교환하고 마을주변 환경정화활동 등 농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또한 마을환경정비, 영농포장관리 등 봉사활동과 영농현장으로기술 해결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17관 1촌 운동이 뿌리를 내려 도농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전북혁신도시에 동지를 둔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은 최신 연구시설을 갖추고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화장품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화장품산업지원센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상호협력 합의

남원시(시장 이환주),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남원시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최형기) 3개 기관이 26일 남원시청에서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앞으로 남원화장품 공동브랜드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화장품산업 인프라·성장기반 구축 및 조성, 국책사업 공동개발 및 참여, 공동연구, 시험·검사, 교육훈련에 관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남원화장품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

하고 궁극적으로 남원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1969년 설립되어 현재는 2015년 과천 정부청사(옛 국가기술표준원 자리)로 자리를 옮긴 이후 국내 최대 시험인증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8개 시험소 및 15개 지원과 8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KTR은 세계 30여 개국 130여 개 기관과 업무 파트너체계를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55년의 시험·인증 경험과 각종 인프라, 협력파트너를 보유한 KTR과의 협력은 남원시와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과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실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에 KTR의 경험과 연구기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남원 화장품산업에 좋은 소식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순창군은 농번기인 5월을 맞아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감안 5월 26일 순창군, 경찰서, 농협, 농기계연구회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운전자 및 농기계 이용 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통계에 따르면 농업기계 사용은 지난 5년간 6.1%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나, 농업기계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5월은 모 이앙철로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영농철로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순창군은 시가지 및 교통흐름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안전사고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전자와 농업기계 이용자가 서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와 협조하여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을 홍보하고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최근 선형개선 및 도로확충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차량가속과 농기계 이용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운전자와 농업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한다면 사고위험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운암면, 옥정호 수변 패랭이꽃 식재

임실군 운암면(면장 박현기)은 26일 봉어섬과 물안개길로 유명한 옥정호 순환도로 수변지역에 사계절용 패랭이꽃을 식재했다.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이용해 식재한 패랭이꽃은 옥정호 순환도로 소공원 9개소와 워터 4개소 10km구간에 3천본이 조성되었다.

박현기 면장은 "옥정호 수변도로는 풍광이 아름다워 해마다 이 지역을 찾는 사진작가들의 시선집중은 물론 워터가 곳곳에 조성되어 피서철 야영하는 캠핑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며, "머무는 동안 새벽 물안개와 패랭이꽃을 감상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정호 순환도로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어 연인 및 가족들의 드라이브코스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교육

순창군이 2016년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사요원 교육을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문화의 집에서 실시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구조와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조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 동원되는 조사요원은 총관리자 및 조사원 등 15명이며 조사대상은 대략 2,500여 사업체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경제총조사는 6월 7일~30일까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조사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미참여 사업체에 대해서 오는 6월13일~7월 22일까지 방문면접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